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

이명숙¹, 하영옥^{1*}
¹안산대학교 간호학과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Myung-Sook Lee¹, Young-ok Ha^{1*}

¹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5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14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212명의 자료를 서술적 분석,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3.61점(5점 만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2.94점(4점 만점), 임상실습만족도는 3.54점(5점 만점)이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임상실습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12 nursing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1 to 12, 2015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win. 21.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veraged 3.61(out of 5), 2.94(4), and 3.54(5), respective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were fou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ritical thinking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improv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rough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Keywords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간호대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으며[1], 간호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치관과 태도, 간호에 대

한 이미지 형성 및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2-3]. 간호사로서의 임상적 역량과 자신감은 실제 상황에서의 성공적 경험이 축적될 때 획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4].

비판적 사고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적을 두고 스스로 판단하여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이용하려는 인지과정을 의미하며[5], 전문직 발전의 본

*Corresponding Author : Young-ok Ha (Ansan University)

Tel: +82-10-7161-6172 email: yoha@ansan.ac.kr

Received October 30, 2015

Revised (1st November 18, 2015, 2nd November 24,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질적인 핵심 기술로서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고[6], 간호실무에서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는 전문적 책임과 질적인 간호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다[7].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키는 것은 수년 동안 간호교육의 목표 중 하나이며[8], 간호교육자는 지속적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넓히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9].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학생의 문제해결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0],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1].

또한 전문직 간호사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느낌과 견해로 공식적인 학교 교육과정 기간과 지속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 발달된다[12]. Seo[13]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간호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간호학에서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13-15],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관[16],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17],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18]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변수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수업연한 4년제 교육과정의 일 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으로 1학기 임상실습을 경험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대상자 수는 G* Power 3.1.2 Program을 사용하였고 효과크기(f^2) 0.20,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 β) 85%를 기준으로 182명이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14명을 목표인원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비판적 사고성향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7]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7개 영역, 27문항으로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2.3.2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측정은 Arthur[19]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를 Sohng과 Noh[12]가 번역한 것을 Seo[13]가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그렇다(4점)까

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Seo[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2.3.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Cho와 Kang[2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Lee[21]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실습내용 9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2$ 였다.

2.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였으며 설문조사에 의해 무기명식으로 모든 강의가 끝난 시간을 이용하여 강의실에서 조사하였다. 설문작성 전에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명동의를 받았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었고 수집된 자료 총 214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하고 212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이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12명 중 여학생이 17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별 분포에서는 20-24세가 168명(79.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세 이상인 학생은 18명(8.5%)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높은 취업률’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 권유’, ‘적성에 맞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8점으로 대상자의 76.0%가 ‘매우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50%는 임상실습 시 임상간호사와의 대인관계가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하였으며, 임상실습 시 관찰과 수행에 대한 비율은 8:2가 42.9%로 가장 높았으며 7:3, 9:1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지도자에게 직접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Female	175 (82.5)
	Male	37 (17.5)
Age (year)	20-24	168 (79.2)
	24-29	26 (12.3)
	30-	18 (8.5)
Reason to choose the nursing	Employment guaranty	63 (29.7)
	Correct aptitude fit	45 (21.2)
	Respond to score	9 (4.2)
	Recommendation of family	48 (22.6)
	Willingness for voluntary service	15 (7.1)
	Good image of nurses	32 (15.1)
Satisfaction of nursing	Very satisfied	29(13.7)
	satisfied	132(62.3)
	Moderate	48(22.6)
	Dissatisfied	3 (1.4)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dissatisfied	0 (0.0)
	Nurses	106 (50.0)
	Patient or caregiver	41 (19.3)
	Practice colleague	13 (6.1)
	Clinical professor	10 (4.7)
	Healthcare member	7 (3.3)
Ratio of observation and practice (observation : practice)	Other	35 (16.5)
	9 : 1	35 (16.5)
	8 : 2	91 (42.9)
	7 : 3	57 (26.9)
	6 : 4	25 (11.8)
Education time by clinical professor	5 : 5	4 (1.9)
	<30min.	91 (42.9)
	30min. ~1hr.	72 (34.0)
	1 ~2hr.	38 (17.9)
	2 ~2hr.	8 (3.8)
	≥3hr.	3 (1.4)

교육받는 시간은 하루 30분 이하가 42.9%로 가장 많았고, 30분-1시간(34.0%), 1-2시간(17.9%), 2-3시간(3.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1(±.30)점이었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94(±.29)점,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4(±.4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Scor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212)

Variables	Mean±SD	Min	Max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61±0.30	2.59	4.56
Professional Self-Concept	2.94±0.29	2.19	3.9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3.54±0.47	2.13	4.9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iffer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Post-Hoc*		Post-Hoc*		Post-Hoc*
Gender	Female	3.62±.31	1.13(.258)	2.93±.29	-.72(.470)	3.52±.47	-.95(.342)
	Male	3.56±.24		2.97±.31		3.61±.48	
Age(year)	20-24 ^a	3.58±.30	4.55(.012)	2.91±.28	5.93(.003)	3.52±.44	1.08(.341)
	24-29 ^b	3.67±.25	a<c	3.05±.28	a<c	3.54±.56	
	30 ^c	3.79±.31		3.11±.34		3.70±.62	
Reason to choose the nursing	Employment guaranty ^a	3.53±.31	3.38(.006)	2.90±.27	5.38(<.001)	3.51±.46	1.49(.195)
	Correct aptitude fit ^b	3.69±.30		3.05±.33	b,e,f>a,c,d	3.68±.52	
	Respond to score ^c	3.63±.29		2.78±.25		3.28±.52	
	Recommendation of family ^d	3.59±.27		2.86±.25		3.49±.48	
	Willingness for voluntary service ^e	3.82±.31		3.19±.24		3.57±.45	
	Good image of nurses ^f	3.56±.28		2.93±.28		3.52±.40	
Satisfaction of nursing	Very satisfied ^a	3.81±.32	7.90(<.001)	3.23±.27	23.69(<.001)	3.82±.60	5.79(<.001)
	satisfied ^b	3.61±.29	a>d	2.95±.25	a>b,c>d	3.54±.44	
	Moderate ^c	3.49±.26		2.75±.24		3.37±.39	
	Dissatisfied ^d	3.44±.10		2.52±.23		3.42±.52	
	Very dissatisfied	-		-		-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es	3.59±.31	1.56(.172)	2.90±.28	3.20(.008)	3.44±.48	2.28(.048)
	Patient or caregiver	3.53±.26		2.87±.24		3.71±.38	
	Practice colleague	3.68±.27		3.00±.19		3.63±.44	
	Clinical professor	3.67±.25		3.01±.33		3.48±.40	
	Healthcare member	3.76±.46		3.17±.25		3.62±.47	
	Other	3.67±.29		3.06±.36		3.60±.54	
Ratio of observation and practice (observation : practice)	9 : 1 ^a	3.62±.28	1.11(.354)	2.92±.26	2.87(.024)	3.48±.58	2.99(.020)
	8 : 2 ^b	3.59±.30		2.89±.28	a,b,c,d<e	3.47±.44	a,b,c,d<e
	7 : 3 ^c	3.60±.32		2.99±.30		3.57±.44	
	6 : 4 ^d	3.61±.29		2.98±.26		3.69±.43	
	5 : 5 ^e	3.96±.27		3.28±.50		4.14±.64	
Clinical education time by clinical professor	<30min.	3.62±.28	.74(.564)	2.91±.27	.38(.820)	3.42±.43	3.82(.005)
	30min. ~1hr.	3.56±.31		2.97±.30		3.56±.47	
	1 ~2hr.	3.64±.31		2.95±.30		3.75±.39	
	2 ~2hr.	3.67±.34		2.93±.49		3.57±.72	
	≥3hr.	2.96±.29		2.96±.29		3.84±.97	

*Scheffe test

연령이 많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F=5.93, p<.01$)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F=4.55, p<.01$)의 평균 점수가 높았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30세 이상의 연령이 20에서 24세 연령 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에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F=7.90, p<.001$), 간호전문직 자아개념($F=23.69, p<.001$), 임상실습만족도($F=5.79, p<.001$)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임상실습 시 관찰과 수행의 비율에서 수행의 비율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F=2.87, p<.05$)과 임상실습만족도($F=3.82, p<.05$)는 더 높게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r=.55, p<.001$)과 임상실습만족도($r=.30,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실습만족도($r=.31, p<.001$)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12)

Variables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r(p)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55 (<.001)	.30 (<.001)
Professional Self-Concept		.31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61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14]의 3.14점과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17]의 3.5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연령, 학과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많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 점

수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8]의 연구결과와 간호학 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 Park[14]의 연구결과와 같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94점으로 Kim[15]의 연구에서 평균 2.85점과 Kim[22]의 연구결과인 2.81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연령, 간호학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임상 실습시 관찰과 수행의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 간호학전공 만족도, 간호학 선택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Pakr[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지만 Kim[15]과 Kang[23]의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대상자의 특성으로 생각되나 연구결과마다 차이를 보이므로 반복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4점으로 Park[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선행연구 [18,20,24]의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 임상 실습시 관찰과 수행의 비율, 임상실습지도자에게 지도받은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Park[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실습 중 수행 비율이 높고 임상실습지도자에게 교육 받은 시간이 많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Han[25]의 연구결과와 같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학생을 단위당 소수로 배치하여 수행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프리셉터와 같은 임상실습지도 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16,18,20,24]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만족도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Park[14]의 연구결과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 사이의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 Kim[15]과 Park[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Kim[22]의 연구결과와도 같다. 따

라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간호학과에 대한 전공만족도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임상실습에서 관찰보다 수행하는 시간이 길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강화시키고 임상수행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1개 대학 4년제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1학기 임상실습을 경험한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분석,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연령($p=.012$), 학과 선택 동기($p=.006$), 전공만족도($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연령($p=.003$), 학과 선택 동기($p < .001$), 전공만족도($p < .001$), 대인관계의 어려움($p=.008$), 임상실습 시 관찰과 수행 비율($p=.02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p < .001$), 대인관계의 어려움($p=.04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임상실습에서의 만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임상실습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실습 전담교수나 프리셉터의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

교와 병원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한 간호학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관련된 특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파악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M. H. Waldner, J. K. Olson. Taking the Patient to the Classroom: Applying Theoretical Frameworks to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4(1), pp.1-14, 2007
DOI: <http://dx.doi.org/10.2202/1548-923X.1317>
- [2] J. A. Y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1), pp.325-334, 2004.
- [3] S. J. Ha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6, pp.132-146, 2000.
- [4] H. S. Nam, K. A. Kim, S. H. Song, Y. S. Kwon, S. H. and E. H. Oh, The Effect of Online Nursing Education Contents on Self Efficacy,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Nurs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5, pp.1353-1360, 2014.
DOI: <http://dx.doi.org/10.7465/jkdi.2014.25.6.1353>
- [5] N. C. Facione, P. A. Facione, C. A. Sanchez,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ement: The Development of California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3(8), pp.345-350, 1994.
- [6] M. Colucciello,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Disposition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 A Conceptual Model for Evaluat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13(4) pp.236-245, 1997.
DOI: [http://dx.doi.org/10.1016/S8755-7223\(97\)80094-4](http://dx.doi.org/10.1016/S8755-7223(97)80094-4)
- [7]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f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pp.25-33. 2004.
- [8] D. Del Bueno, A Crisis in Critical Thinking.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 Vol.26(5), pp.278-282, 2005.
- [9] D. H. Kim, S. M. Moon, E. J. Kim, Y. J. Kim, S. H. Lee,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cording to Academic Level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Nurse Education Today*, Vol.34, pp.78-82, 2014.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3.03.012>

[10] J. Y. Lee, M. H. Cho,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Process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High Voc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Vol.13(34), pp.241-253, 2012.

[11] J. Yoon,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4(2), pp.159-166, 2008.

[12] K.Y. Sohng, H. H. N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26(1), pp.94-106, 1996.

[13] W. H. Seo,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pp. 13-34, 2007.

[14] H. S. Park, J. Y. Ha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6(3), pp.695-706, 2015.
DOI: <http://dx.doi.org/10.7465/jkdi.2015.26.3.695>

[15] N. H. Kim, K. W. Kim, Self-Efficac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5(4), pp.41-51, 2011.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1.5.4.041>

[16] H. 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2), pp.227-236,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27>

[17] I. S. Park, R.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4), pp.105-117, 2013.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4.221>

[18] M. S. Park, M. H. Lee, J. A. Gu,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29(2), pp.111-123, 2011.

[19] D. Arthur,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Master of Educational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1990

[20] K. J. Cho, H. S. Kang, Correlation of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14(2), pp.63-745, 1984.

[21]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pp.219-231, 2004.

[22] J. I.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9), pp6053-6060, 2015.

[23] H. O. Kang,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pp. 26-30, 2008.

[24] M. H. Sung,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8(1), pp.18-24, 2012.

[25] J. J. Ha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pp.33-35, 2012.

이 명 숙(Myung-Sook Le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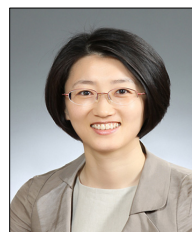
- 1980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6년 9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
- 1980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성장발달, 장애아동간호

하 영 옥(Young-Ok Ha)

[정회원]



- 2003년 3월 : University of Cincinnati (pediatric nurse practitioner 석사과정)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응급환아간호, 아동간호